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논평 및 대안 촉구 기자회견 예고보도(2023.12.11.)

# 12/12(화), 2024 학년도 수능 결과 논평 및 대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긴급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강민정, 문정복 의원(국회의원 추가 기입 예정) 및 대입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하는 다수의 교육, 시민단체(단체명 추가 기입 예정)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에 대해 논평하고 대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12월 8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만점자는 단 한 명,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한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역대급 난이도의 불수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변별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을 강요하게 된 결과입니다. 오늘의 대입은 변별을 위해 학생 대다수를 패배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변별을 넘어서 학생들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2028대입을 절대 평가로 전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대평가 금지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125개 교육 및 시민 단체는 지난 12월 8일 국가교육위원회,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2028 대입 시안 관련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실과의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2024학년도 수능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2028 대입 정책 확정 과정에서 125개 시민단체의 대응 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2028 대입 개편 방안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육계에서는 대다수가 대입 상대평가와 교육부의 2028 대입 개편 시안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상황에서 혹독한 상대평가로 아이들을 낙오자로 만드는 교육이 고착화될 심각한 우려 때문입니다. 학교 교육에서 고통이 아닌 희망과 미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선언의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논평 및 대안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1시 20분

□ 장 소: 국회 소통관

□ 문 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신소영(02-797-4044 / 내선 501)

□ 주 최:

<국회의원>

강득구 의원, 강민정 의원, 문정복 의원 (국회의원 추후 기입 예정)

<대입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하는 교육·시민단체>

(단체명 추가 기입 예정)

2023. 12. 12.